

1. 보험가입 결정요인 분석

본 절에서는 III장에서 살펴본 개별 보험(연금 포함) 가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모형은 종속변수가 1(가입)과 0(미가입)의 값을 가지는 이산변수(Discrete variable)임을 감안해 프로빗(Probit)모형을 사용하였다. 동 모형에서 설명변수는 주된 관심인 연령 관련 변수(연령, 연령의 제곱)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¹¹⁾ 또한, 연령 관련 변수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별, 기혼 여부, 자녀 보유 여부, 가족 수, 교육 수준과 같은 인구 사회적 특성과 소득수준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다.¹²⁾ 기존연구(Yaari 1965; Stiglitz 1969; Ericson et al. 2021)에 따르면 위험감수도(혹은 위험회피도)와 위험에 대한 인식도 보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위험감수와 개별 위험에 대한 염려 수준도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개별 독립변수에 해당된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는 이분산(Heteroskedasticity)을 교정한 이분산강건표준오차(Heteroskedasticity 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했다.

우선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 자신을 위한 간병보험,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IV-1>과 같다. 보고된 회귀계수를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면,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일수록, 기혼일수록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병보험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일수록, 기혼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았으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입확률이 낮았다. 사망보험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일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았으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입확률이 낮았다. 기혼 및 자녀 변수와 사망보험 가입확률 간의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난 것은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 및 자녀의 부양을 기대하거나 상속 동기

11) 연령의 제곱은 연령과 종속변수 간의 비선형 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감안해 설명변수에 포함시켰음

12) 성별, 기혼 여부, 자녀 보유 여부, 교육 수준(대졸 여부)은 0과 1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이며, 가족 수 및 소득수준은 연속된 값을 가지는 연속변수임

로 인해 사망보험 가입 니즈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상해보험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기혼일수록, 자녀가 있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았으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입확률이 낮았다. 자신을 위한 간병보험과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모두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았으며,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의 경우 연령과 부(-)의 관계가 있었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연령과 보험가입 간의 비선형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연령제곱변수의 추정계수는 자신을 위한 간병보험 가입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리고 연령제곱변수 모두 연령변수와 반대의 부호를 보이고 있어, 연령과 보험가입 간의 비선형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의 경우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입성향이 높아지다가 고연령에서 다시 낮아지는 역U자형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소득수준은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을 보장하는 모든 보험의 가입 가능성과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나서 일정 소득이 있어야만 민영보험 가입 여력이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위험감수도 변수는 자신을 위한 간병보험 가입확률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고 나머지 보험가입 확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아서 대체로 위험감수성향과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 가능성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 가입 요인을 추정하기 위한 회귀모형에 신체적 건강위험에 대한 염려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포함시켰는데, 신체적 건강위험에 대한 염려정도 변수는 상해보험 가입확률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고 나머지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신체적 건강에 대한 염려 수준은 관련된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가입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서 신체적 건강과 관련된 위험에 대한 주관적 염려 수준이 높더라도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자신을 위한 간병보험 가입 관련 회귀모형과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가입 관련 회귀모형에 각각 자신의 간병에 대한 염려 수준 변수와 가족의 간병에 대한 염려 수준 변수도 포함시켰는데, 두 변수 모두 간병보험 가입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건강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 및 가족의 간병에 대한 주관적 염려 수준의 증가가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가입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 보험가입 프로빗(Probit) 분석 결과: 건강, 사망 및 간병위험

구분	실손의료 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	간병보험 (자신)	간병보험 (가족)
연령	0.085*** (0.020)	0.119*** (0.019)	0.106*** (0.018)	0.044** (0.018)	0.021 (0.022)	-0.291** (0.140)
연령제곱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0)	-0.000 (0.000)	0.003** (0.001)
여성	0.327*** (0.071)	0.372*** (0.068)	0.064 (0.062)	-0.070 (0.062)	0.094 (0.074)	0.632* (0.360)
기혼	0.331*** (0.112)	0.297*** (0.109)	0.175* (0.096)	0.222** (0.097)	-0.054 (0.120)	0.044 (0.419)
자녀	0.184 (0.128)	0.182 (0.124)	0.315*** (0.109)	0.489*** (0.110)	0.119 (0.134)	-0.378 (0.359)
가족 수	-0.038 (0.033)	-0.056* (0.031)	-0.075** (0.030)	-0.137*** (0.030)	-0.060* (0.038)	0.006 (0.165)
대출	0.055 (0.088)	0.046 (0.083)	-0.060 (0.079)	-0.037 (0.078)	-0.105 (0.093)	0.159 (0.449)
소득수준	0.076*** (0.021)	0.071*** (0.020)	0.106*** (0.018)	0.074*** (0.019)	0.068*** (0.021)	0.299*** (0.090)
위험감수도	0.033 (0.030)	-0.014 (0.028)	0.029 (0.026)	0.012 (0.026)	0.069** (0.032)	-0.040 (0.141)
신체적건강 염려	0.035 (0.032)	-0.018 (0.031)	-0.045 (0.028)	-0.061** (0.029)	- -	- -
자신간병 염려	- -	- -	- -	- -	-0.027 (0.028)	- -
가족간병 염려	- -	- -	- -	- -	- -	0.196 (0.155)
관측치 수	1,892	1,892	1,892	1,892	1,892	127

주: 1)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이분산강건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다음으로 은퇴 및 소득흐름 위험과 관련해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개인연금 및 주택연금 가입분석을 시도했으며, 분석 결과는 <표 IV-2>와 같다. 분석 결과, 연령은 개인연금 가입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다. 연령제곱변수는 개인연금 가입 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과 개인연금 가입 간의 비선형관계 존재성이 확인되었으며, 역U자형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나머지 변수 관련해서는 여성일수록, 대출 이상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위험감수도가 높을수록 개인연금 가입확률이 증가했다. 이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길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에 대한 가입 유인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고, 상대적으로 고학력자일수록 금융지식이 높아 민간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 연금을 보다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일정 소득 이상이어야만 개인연금 가입 가능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은퇴준비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으면 개인연금 가입확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분석모형에서 동시성(Simultaneity)에 의한 내생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해 반대 방향으로 개인연금 가입확률이 높아질 때 은퇴준비에 대한 염려 수준이 낮아질 가능성 즉, 부(-)의 영향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의 경우에도 연령이 가입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 연령제곱은 가입확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효과가 나타나서 역U자형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¹³⁾ 나머지 변수의 영향과 관련해서는 가족 수가 증가할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입확률이 증가했으며, 대출 이상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입확률이 감소했다. 이외에 다른 변수는 주택연금 가입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3) 주택연금 가입은 만 55세 이상부터 가능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IV-2〉 연금 및 보험가입 프로빗(Probit) 분석 결과: 은퇴준비 위험

구분	개인연금	주택연금
연령	0.075*** (0.022)	0.524** (0.216)
연령제곱	-0.001*** (0.000)	-0.005** (0.002)
여성	0.161** (0.068)	-0.042 (0.256)
기혼	-0.053 (0.102)	0.059 (0.265)
자녀	0.123 (0.117)	-0.325 (0.255)
가족 수	-0.001 (0.032)	0.273*** (0.085)
대졸	0.221** (0.095)	-0.442* (0.235)
소득수준	0.146*** (0.020)	0.067 (0.055)
위험감수도	0.119*** (0.030)	0.195 (0.132)
은퇴준비 염려	-0.085*** (0.027)	0.056 (0.112)
관측치 수	1,662	1,662

주: 1)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이분산강건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마지막으로 재산손해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인 여행자보험, 집보험 및 주택화재보험, 풍수해보험·농어업보험·풍수재위험 특약, 임의자동차보험, 사이버보험의 가입분석 결과는 〈표 IV-3〉에 보고하였다. 여행자보험의 경우 여성일수록, 기혼일수록, 대졸 이상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아졌다. 집보험 및 주택화재보험은 여성일수록, 기혼일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재산손해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아졌다. 이는 재산손해 위험에 대한 주관적 염려 수준이 높을수록 직접적인 재산손해와 관련 있는 집보험 및 주택화재보험 가입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직관과 일치되는 결과이다. 풍수해보험·농어업보험·풍수재위험 특약도 재산손해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앞서 언급한 직관과 일치된 결과로 보인다. 임의자동차

보험은 연령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자녀가 있을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 때 가입확률이 높아졌으나, 여성일수록 가입확률이 낮아졌다. 연령제곱변수는 임의자동차보험 가입확률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어 연령과 보험가입 간에 비선형관계가 확인되어 역U자형 형태가 존재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사이버보험의 경우 기혼일수록 가입확률이 낮아졌으나, 자녀가 있을수록 그리고 위험감수도가 높을수록 가입확률이 높아졌다.

〈표 IV-3〉 보험가입 프로빗(Probit) 분석 결과: 재산손해위험

구분	여행자보험	집보험, 주택화재보험	풍수해보험, 농어업보험, 풍수재위험 특약	임의자동차보험	사이버보험
연령	-0.004 (0.018)	0.028 (0.020)	0.031 (0.030)	0.097*** (0.018)	0.044 (0.044)
연령제곱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001 (0.000)
여성	0.249*** (0.062)	0.128** (0.064)	0.106 (0.090)	-0.335*** (0.063)	0.003 (0.134)
기혼	0.256*** (0.094)	0.193** (0.097)	-0.064 (0.136)	0.408*** (0.093)	-0.379* (0.224)
자녀	0.043 (0.108)	0.107 (0.110)	0.231 (0.167)	0.292*** (0.106)	0.676*** (0.250)
가족수	-0.038 (0.028)	0.018 (0.029)	-0.001 (0.043)	0.026 (0.028)	0.007 (0.064)
대출	0.581*** (0.079)	0.016 (0.081)	0.013 (0.115)	0.013 (0.080)	-0.170 (0.151)
소득수준	0.124*** (0.018)	0.056*** (0.018)	0.023 (0.024)	0.098*** (0.019)	0.034 (0.038)
위험감수도	-0.010 (0.025)	0.029 (0.026)	0.060 (0.038)	0.034 (0.026)	0.106* (0.056)
재산손해 염려	-0.020 (0.024)	0.117*** (0.025)	0.093*** (0.035)	0.035 (0.025)	-
사이버손해 염려	-	-	-	-	0.018 (0.048)
관측치 수	1,887	1,887	1,887	1,887	1,887

주: 1) 괄호 안의 표준오차는 이분산강건표준오차임

2) ***, **, *는 각각 1%, 5%, 10%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함

이상 보험가입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동 분석의 주요 설명변수인 연령변수는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개인연금, 주택연금, 임의자동차보험 가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개인연금, 임의자동차보험의 가입확률은 높아지는 반면,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의 가입확률은 낮아졌다. 다만, 이러한 보험의 가입확률과 연령과의 비선형관계가 존재하여 가입확률이 증가(감소)하면서 그 증가폭(감소폭)이 점차 축소(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나머지 보험 종목(연금 포함)에 대해선 연령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보장격차 정량분석: 건강, 은퇴준비 및 자연재해 위험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보험(연금 포함) 가입 및 수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면 응답자가 직면하고 있는 보장격차(Protection gap)에 대한 직·간접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Schanz(2018)는 “글로벌 보험 보장격차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보험 보장격차는 ‘사고나 위험으로 인한 총손실금액과 보험을 통해 손실금액(실제 구매한 보험의 보장금액) 간의 차이’로 정의될 수 있으나, 모든 위험에 대해 정교하게 측정되기 어려우며 주관성을 가진다고 언급했다. 또한, EIOPA(2022)는 위험 노출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보험 활용을 중심으로 보험 보장격차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건강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종목 중 비교적 보험가입률이 높은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지불된 금액을 제외하고 직접 지불한 의료비 중에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충당된 비율을 조사항목으로 포함하였다.¹⁴⁾ 실손의료보험을 보유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실손의료보험금 비율을 산정한 결과, 실손의료보험금 비율은 41.6%였으며, 이를 보험 보장격차로 단순 환산하기 위해 “100-실손의료보험금 비율” 공식을 사용해 보험 보장격차를 산출하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 보장격

14) Schanz(2018)는 의료보장(Healthcare)와 관련된 보장격차를 보험회사나 정부가 아닌 개인이 직접 의료비를 지불하는 본인부담금(Out-of-pocket expense)으로 정의했음.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해 총의료비 중 보험회사를 통해 지불되는 실손의료보험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실손의료보험 관련 보험보장격차를 파악하는 조사항목으로 포함했음.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음. 귀하께서 직접 지불하신 금액(국민건강보험금을 제외하고 직접 지불한 금액) 중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으신 비율은 얼마나 되십니까? 직접 지불한 의료비 중 약 ()% [응답범위: 0~100%]

차는 5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손실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 보험금을 제외하고 직접 지출하는 의료비 중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되지 않은 비율은 58.4%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사한 방식으로 연령대별 보장격차를 산정하면, 연령대별 실손의료보험의 보장격차는 20대 이하가 66.1%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도 60.5%로 높은 편이었다. 40대 이상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장격차는 전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장격차 수준인 58.4%보다는 모두 낮은 수준이었다. 연령대별 실손의료보험 보장격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V-4〉 실손의료보험 보장격차

(단위: %)

구분	실손의료보험금 비율	보험 보장격차
연령대	20대 이하	33.9
	30대	39.5
	40대	45.6
	50대	42.2
	60대	46.9
전체	41.6	58.4

주: 1) 실손의료보험금 비율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직접 지불한 의료비 중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총당된 비율임
 2) 보험 보장격차는 “100-실손의료보험금 비율”임
 3) 평균차이 검정 F-값: 4.80***

다음으로 은퇴위험을 대비하는 연금 관련 보장격차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은퇴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수령금액이 은퇴 전 월 소득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예상하는지를 조사하였다.¹⁵⁾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모두 합친 공·사적연금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50.1%인 것으로 조사되어서 미은퇴자가 은퇴 후에 예상하는 국민연금은 현재 받고 있는 월평균 근로소득의 50.1%일 것으로 응답되었다. 보장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70-예상소득대체율”공식을 사용해 단순 변환한 결과, 국민연금 보장격차는 19.9%인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⁶⁾ 즉,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수령해도 은퇴 전 소득과 비슷

15) Schanz(2018)는 연금 관련 보장격차를 소득대체율(replacement rate)로 간접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본 연구도 이를 따라 소득대체율(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소득) 개념을 도입해 연금 관련 보장격차를 조사했음.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음. 귀하께서 받게될 월 국민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은퇴 전 소득의 어느 정도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은퇴 전 월 소득은 근로기간 중 평균 월 소득을 의미합니다.) 은퇴 전 월 소득의 약 ()% [응답범위: 0~100%]

한 수준을 유지하기에 19.9%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연령대별로는 가장 연령대가 낮고 은퇴시기와 멀리 떨어진 20대 이하가 31.8%의 보장격차인 것으로 산정되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크게 높은 보장격차 수준을 나타내었다. 30대 이상 연령대의 경우 14.7~18.0% 수준의 보장격차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대별 보장격차 수준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V-5〉 국민·퇴직·개인연금 보장격차

(단위: %)

구분	공사연금 예상 소득대체율	공사연금 보장격차
연령대	20대 이하	31.8
	30대	14.7
	40대	17.7
	50대	18.0
	60대	16.9
전체	50.1	19.9

- 주: 1) 예상 소득대체율은 미은퇴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대비 향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월 연금액의 비중임
 2) 연금 보장격차는 “70-예상소득대체율”임
 3) 평균차이 검정 F-값: 4.26***

개별연금의 보장격차 관해서 우선 국민연금의 예상 소득대체율은 37.7%인 것으로 조사되어서 미은퇴자가 은퇴 후에 예상하는 국민연금은 현재 받는 월평균 근로소득의 37.7% 일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에 대응하는 국민연금 보장격차는 32.3%인 것으로 파악되어 국민연금을 수령해도 은퇴 전 소득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에 32.3%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보장격차 수준이 35.4%로 가장 높게 예상하였으며,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장격차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령대별 국민연금 보장격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16) 연금 보장격차는 OECD 권고 소득대체율인 70%를 적용해 “70-예상소득대체율”로 접근했음

〈표 IV-6〉 국민연금 보장격차

(단위: %)

구분	국민연금 예상 소득대체율	국민연금 보장격차
연령대	20대 이하	41.0
	30대	39.4
	40대	38.3
	50대	35.1
	60대	34.6
전체	37.7	32.3

- 주: 1) 예상 소득대체율은 미은퇴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대비 향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월 연금액의 비중임
 2) 연금 보장격차는 “70-예상소득대체율”임
 3) 평균차이 검정 F-값: 4.26***

같은 방식으로 퇴직연금 보장격차를 살펴보면, 전체 미은퇴자가 예상하는 예상 소득대체율은 33.6%로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퇴직연금 보장격차는 36.4%로 은퇴 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해도 은퇴 전 소득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기에 36.4% 부족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령별로는 50대의 보장격차 수준이 40.7%로 가장 높게 예상되었으며, 40대, 60대, 30대, 20대 이하 순으로 높게 예상되었다. 퇴직연금의 보장격차 관련해서 연령대 간 보장격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V-7〉 퇴직연금 보장격차

(단위: %)

구분	퇴직연금 예상 소득대체율	퇴직연금 보장격차
연령대	20대 이하	41.1
	30대	38.4
	40대	29.6
	50대	29.3
	60대	34.2
전체	33.6	36.4

- 주: 1) 예상 소득대체율은 미은퇴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대비 향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월 연금액의 비중임
 2) 연금 보장격차는 “70-예상소득대체율”임
 3) 평균차이 검정 F-값: 7.19***

연금 보장격차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개인연금 보장격차에 대해 살펴보았다.¹⁷⁾ 전체 미응답자의 개인연금 예상 소득대체율은 4.3%로 매우 낮았으며, 이를 70%에서 차감한 보장격차는 95.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개인연금의 경우에 만기에 연금 형태가 아닌 일시금 형태로 대부분 수령을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에 비해 보장격차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의 개인연금 보장격차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20대 이하, 50대, 40대, 30대 순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보장격차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IV-8〉 개인연금 보장격차

(단위: %)

구분	개인연금 예상 소득대체율	개인연금 보장격차
연령대	20대 이하	2.8
	30대	6.0
	40대	5.2
	50대	4.6
	60대	2.7
전체	4.3	67.3

- 주: 1) 예상소득대체율은 미연퇴자의 월평균 근로소득 대비 향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월 연금액의 비중임
 2) 연금 보장격차는 “70-예상소득대체율”임
 3) 평균차이 검정 F-값: 6.34***

또한, 자연재해 관련 보장격차 가능성 파악을 위해 자연재해로 인해 살고 있는 집에 피해를 입었다는 가정하에 보험이 이러한 피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설문하였다.¹⁸⁾ 조사 결과, 전체 설문자의 26.5%가 관련 재해를 보장하는 보험이 없고, 정부 지원에 의존할 것이라고 응답해 자연재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 보장격차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관련 피해를 보험을 통해 보장받더라도 가입한 보험이 모든 또는 대부분의 수리비를 보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3%에 불과했고, 가입한 보험이 일정 금액까지 보험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1.6% 정도였다. 게다가

17)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이 포함됨

18) EIOPA(2022)의 자연재해 관련 보장격차 가능성을 파악하는 설문을 참조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은 “홍수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살고 계신 집에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음 중 귀하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을 선택해 주십시오. [1개 선택]”

어떤 사고/상황이 가입한 보험에 포함되는지 확실치 않다는 비중이 18.2%, 정확한 보장이나 보장 제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확실치 않다는 비중도 14.9%를 차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의 활용 능력 부족으로 인한 보장격차 발생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유사한 결과가 나타나서 대부분 연령대에서도 관련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없고, 정부 지원에 의존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졌다. 다만, 40대의 경우엔 가입한 보험이 일정 금액까지는 보험금을 지불할 것이라고 한 응답이 다른 응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보장 보험의 부재와 더불어 정부 지원에 의존할 것이라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가장 낮아 보험보장 격차 발생 가능성도 가장 낮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9〉 자연재해로 인해 살고 계신 집에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한 설명

(단위: %)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연령별	20대 이하	3.7	18.9	18.0	15.8	22.8	20.8
	30대	6.7	17.4	20.1	16.9	26.5	12.5
	40대	9.1	25.7	20.1	14.6	20.6	9.8
	50대	6.0	23.5	16.8	14.4	30.8	8.6
	60대	5.7	21.4	15.7	13.0	32.2	12.0
전체		6.3	21.6	18.2	14.9	26.5	12.5

- 주: 1) 홍수나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살고 있는 집에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설문함
 2) ① 내가 가입한 보험이 모든 또는 대부분의 수리비를 보장할 것임
 ② 내가 가입한 보험이 일정 금액까지 보험금을 지불 할 것임
 ③ 어떤 사고/상황이 내가 가입한 보험에 포함되는지 확실치 않음
 ④ 정확한 보장이나 보장 제외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확실치 않음
 ⑤ 이러한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 없고, 정부 지원에 의존할 것임
 ⑥ 모르겠음/대답하고 싶지 않음

3. 보험가입과 상대적 보장격차분석

한편, Schanz(2018)는 사고 혹은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모두 보험으로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보험을 적게 구입할수록 보장격차가 커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

한, 보장격차 발생의 원인을 수요측 원인과 공급측 원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수요측 원인에는 구매력(Affordability), 인식도(Awareness), 호감도(Appeal), 신뢰(Trust), 문화 및 사회적 요소(Cultural and social factors), 행동편향성(Behavioral biases)을 포함했으며, 공급측 원인에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Moral hazard and adverse selection), 제도적 장애(Institutional obstacles), 부보 가능성 제약(Limits to insurability)을 포함시켰다. 즉, 보험가입 정도의 차이도 보장격차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이유로 인해 가입하지 않았는지 좀 더 살펴본다면, 상대적 보장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표 IV-10〉 보험 보장격차 발생 원인

	구분	원인 예시
수요측 원인	구매력 (Affordability)	보험가격 수준, 가처분소득 수준
	인식도 (Awareness)	금융이해력 정도
	호감도 (Appeal)	보험서비스의 질
	신뢰 (Trust)	보험금 지급에 대한 약속
	문화 및 사회적 요소 (Cultural and social factors)	성숙경제 여부, 선진시장 여부, 종교
	행동편향성 (Behavioral biases)	보험소비자가 보험금 수령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를 잠재적 손실로 간주
공급측 원인	거래비용 (Transaction costs)	보험계약갱신, 보험금청구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정보비대칭성
	제도적 장애 (Institutional obstacles)	법적·규제 환경, 규제 수준
	부보 가능성 제약 (Limits to insurability)	사이버리스크, 데이터 및 계리 인력 부족

자료: Schanz(2018) 내용을 표로 정리함

연령대별 보험 보장격차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앞에서 보여준 보험가입 분석 결과와 연령대별 보험 미가입 사유를 연결시켜 좀 더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보험가입 분석 결과에서 연령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준 실손의료보험, 질병보험, 사망보험, 상해보험,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 개인연금, 임의자동차보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연령변수에 해당된 회귀계수의 방향성(Direction)에 따라 상대적 보험 보장격차가 높거나 적다고 가정하고, 이를 Ⅲ장 3절에서 제시한 보험 미가입 사유와 연결시켜 보험 보장격차 발생 원인을 분석하였다.

먼저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연령과 가입확률 간의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20대 이하 및 30대의 경우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 혹은 소득 부족으로 가입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주로 인식도(Awareness) 혹은 구매력(Affordability)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 보험 보장격차가 커질 수 있음을 나타냈다. 질병보험의 경우도 연령과 가입확률 간의 정(+)의 관계가 확인됐으며,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은 20대 이하 및 30대의 미가입 사유에 초점을 맞춰보면,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모르거나, 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인식도(Awareness) 부족으로 인해 상대적 보험 보장격차가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망보험도 연령과 가입확률 간의 정(+)의 관계였으며, 상대적 연령이 낮은 20대 및 30대는 부양가족이 없어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아 상품에 대한 호감도(Appeal) 부족이 상대적 보험 보장격차 발생에 다른 요인보다 높게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상해보험의 경우도 연령과 가입확률 간의 정(+)의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모든 연령대가 '상해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을 것 같아서'로 응답해 연령대 간에 상대적 보장격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뚜렷한 원인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대체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보상범위 등 상품을 잘 몰라서'로 미가입 사유를 응답한 비율이 높아져서 상품에 대한 인식도(Awareness) 부족이 상대적 보험 보장격차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과 다르게 가족을 위한 간병보험의 경우 연령과 가입확률 간의 부(-)의 관계가 나타났는데,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50대 및 60대의 경우 '보험보장범위나 보장금액에 비해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가 미가입 사유로 가장 높게 나타나서 상품에 대한 호감도(Appeal) 부족이 상대적 보험 보장격차 발생에 다른 요인보다 높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개인연금의 가입확률은 연령변수와 정(+)의 관계였으며, 이를 연령대별 미가입 사유와 연결시켜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 보험에 미가입했다는 비중

이 대체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은퇴시기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20대 및 30대에게 개인연금 미가입으로 인한 상대적 보장격차 해결의 중요성이 은퇴시기에 가까운 40대 및 50대보단 적을 수 있다. 다만, 분석 결과로만 판단할 때 젊은 연령층의 개인연금 상품에 대한 인식도(Awareness)를 제고할 수 있다면, 상대적 보장격차 완화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임의자동차보험은 연령과 가입확률 간의 정(+)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대에서 보험이 필요할 확률이 낮아서 미가입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연령이 낮아질수록 '해당 상품을 잘 몰라서'로 응답한 비율도 높아져서 상품에 대한 인식도(Awareness) 부족도 상대적 보험 보장격차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